

민주 지방선거 혁신 공천 '시민 배심원제' 최대 이슈

혁신위 도입 추진... 호남발 물갈이 태풍 예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특성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단체장과 현역 지방의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배제하는 '혁신 공천' 방안 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호남발 '물갈이'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경선제, 당원경선제, 국민+당원경선제,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경선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의 당헌·당규에 포함된 모든 공천 방안을 검토, 지역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고 현역의 기득권을 최대한 배제하는 '혁신 공천'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공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광역과 기초 단위의 경선 방식도 따로 따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영남지역은 전당원 경선제가 도입되고 호남지

역은 국민+당원 경선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 및 광역의원 경선에는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에는 국민+당원 경선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역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원 경선 등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 및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뿌리라는 점에서 시민 배심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통합·혁신위가 마련한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따르면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문가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된다.

조작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일반 국민+당원 경선'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대적인 혁신 경선 방식 도입에 나선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에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 일정 부분 전략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1월 중순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선 방식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많은 현실이어서 오는 2월 예비후보 등록 직전에나 최종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포함되는 모든 경선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경선 방안은 이른바 1월 중순, 늦으면 1월말에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찬바람 헤치고 희망을 캔다

의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해본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한해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새해를 맞아 내년 27일 보성군 별교읍 여자만에서 꼬막채취를 위해 날배를 타는 주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처럼 새해에는 삶의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해본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7조 UAE 원전 피말린 수주전... 한국이 따냈다

직접 효과만 소나타 100만대 수출 규모

후 대통령 직접 방문 '수주 외교' 성과

UAE(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한화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27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해외수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 UAE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노력을 펼쳐면서 앞서 나가던 프랑스 컨소시엄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에미

리트 펠리흐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장관 간에 체결된 한·UAE 경제협력협정, 김상수 한전 사장과 칸둔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회장 간에 서명된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가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은 프랑스 아레바(AREVA) 컨소시엄,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하는데 첫 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

일단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분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로, NF소나타 100만대 또는 초대형 유조선(30만 급)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해 추가로 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1박2일간의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라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연합뉴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 지 30여년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이 격화되자 한·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이번 입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지난달 이후 6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지원 외교를 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1박2일간의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라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연합뉴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 지 30여년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이 격화되자 한·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이번 입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지난달 이후 6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지원 외교를 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1박2일간의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라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연합뉴스

예산안 단독 처리 충돌 가능성

김형오 의장 막바지 중재 무위... 여야 대결국면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막바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예산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자체 예산 수정안을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데 이어 29~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 저지하기로 하고 예결위 회의장 사수를 위해 비상체제

에 돌입할 예정이다.

때문에 새해 예산안은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거나 야당의 결사 저지에 준예산 편성 사태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신년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간 대결 국면을 길게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이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날 오후 6시 국회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갖고 막판 대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 입장차가 너무나 커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안 대표 태도만 보면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수순 돌입에 들어간 것 같다. 내일부터는 강행처리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된 것으로 느꼈다"며 "김 의장도 하고자 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중재를 빙자한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축적이 아닌가 하는 강한의 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많은 눈

영광·함평 대설 예비특보

광주·전남에는 28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다. 영하권을 뚫는 강추위는 연초까지 이어지겠으며, 30~31일에 또

한차례 눈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방은 2~7cm, 그 밖의 지역은 1~3cm. 기상청은 전남 오후를 기해 영광과 함평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한 낮에도 출렁이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

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2.0~4.0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며, 남해서부 앞바다도 1.5~2.5m로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30일과 31일 또 한차례 눈이 내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상 사람들의 라이브 뉴스채널~
연립뉴스입니다

연립뉴스